지역 소식통

고창수박, 현대백화점 특별판매전 '대박'

제철을 맞은 '고창수박'이 현대백화점에서 진행한 특별 판매전에서 대박을 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등 3개 점포에서 고창 흑수박과 블랙보스수박 판매전이 열렸다.

고창 흑수박은 아삭한 식감과 당도 12Brix, 7~8kg 이상의 엄선된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이다. 일반 수박과 달리 단단한 과육과 풍부한 과즙으로 월등한 맛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블랙보스수박은 망고수박, 노란수박으로 불리며,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현대백화점에서 고창 흑수박 한 덩이 2만8500원에 현장판매가 진행, 첫날에는 반나절 만에 한정수량이 빠르게 완판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정읍시가 이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가축질병, 빈번한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임대한 농기계는 총 5만 2325대로 총 5억 7400만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시는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함해 각 권역별로 5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모든 지소에서 임대료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는 95종 1506대로 임대 24시간 기준 사다리 1000원, 굴삭기 9만 4000원, 스키드로더 11만원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윤곽'

고창군, 1792억원 상당 투입 세부사업 조율 나서

고창군이 총사업비 1792억원이 투입되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사업 조율에 나섰다.

20일 고창군에 따른 전날(19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은 4대 전략(삶의 질 높은 공간, 매력적인 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미래선도 인재육성 등) 3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1792억원 상당으로 꾸려졌다.

내부절차를 거쳐 6월말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청년, 아동, 일자리,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제시로 지방소멸을 극복에 한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고창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노형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고, 인구정책 분야 실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군의원 및 민간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노형수 고창 부군수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군정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검토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비 직불금 20억원 추가지급…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정읍시,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해 6월 내 지급 예정

정읍시는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비 직불금 20억원을 이달 내에 추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가 1만 2000여 명이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13만 원,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21만 3000원을 지급한다.

논·밭 구분 없이 도내농지 합산 0.1ha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청·접수 받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6월~10월)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11월~내년 1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추가지급이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 ·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299회 정례회 둘째 날인 지난 15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를 진행했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관련 의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경신 의원은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이웃돕기 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상패만이라도 제작·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민규 의원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삭감 등을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최인규 의원은 황토배기유통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사가 3명인데 2019년도 당시 대표 1인 등기로 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다.

박성만 의원은 전기굴착기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액 미 집행 되었는데 이는 장비의 마력 등 성능이 떨어져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임종훈 의원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대안이 없는지와 인력 충원의 방법 이외에 영상송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의원은 전봉준 장군의 고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과 전봉준 장군 동상 및 군상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끝으로 이선덕 의원은 기숙형고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전체 학교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22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으며, 제299회 정례회는 21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폐회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틀(6.19~ 6.20)에 걸쳐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졌다.

"건설적인 제안 적극 반영해 달라"

부안군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틀(6.19~6.20)에 걸쳐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19일, 군정질문 첫날에는 김형대 의원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 및 미흡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박병래 의원이 '푸드앤 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운영계획', 이강세 의원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및 향후 육성 방안', 이용님 의원이 '부안군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박병래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난 질문을 토대로 한 추진 경과 등에 대해 물음을 덧붙이며 "지난 2022년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과 실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은 보다 나은 부안군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이어, 둘째날 군정질문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 산업의 현주소', 이한수 의원이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 이현기 의원이 '위도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 박태수 의원이 '줄포상설시장 및 곰소젓갈시장 활성화 방안', 김두례 의원이 '부안군 대표축제 집중투자를 위한 소규모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방안' 등 22건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군정 질문들은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 추진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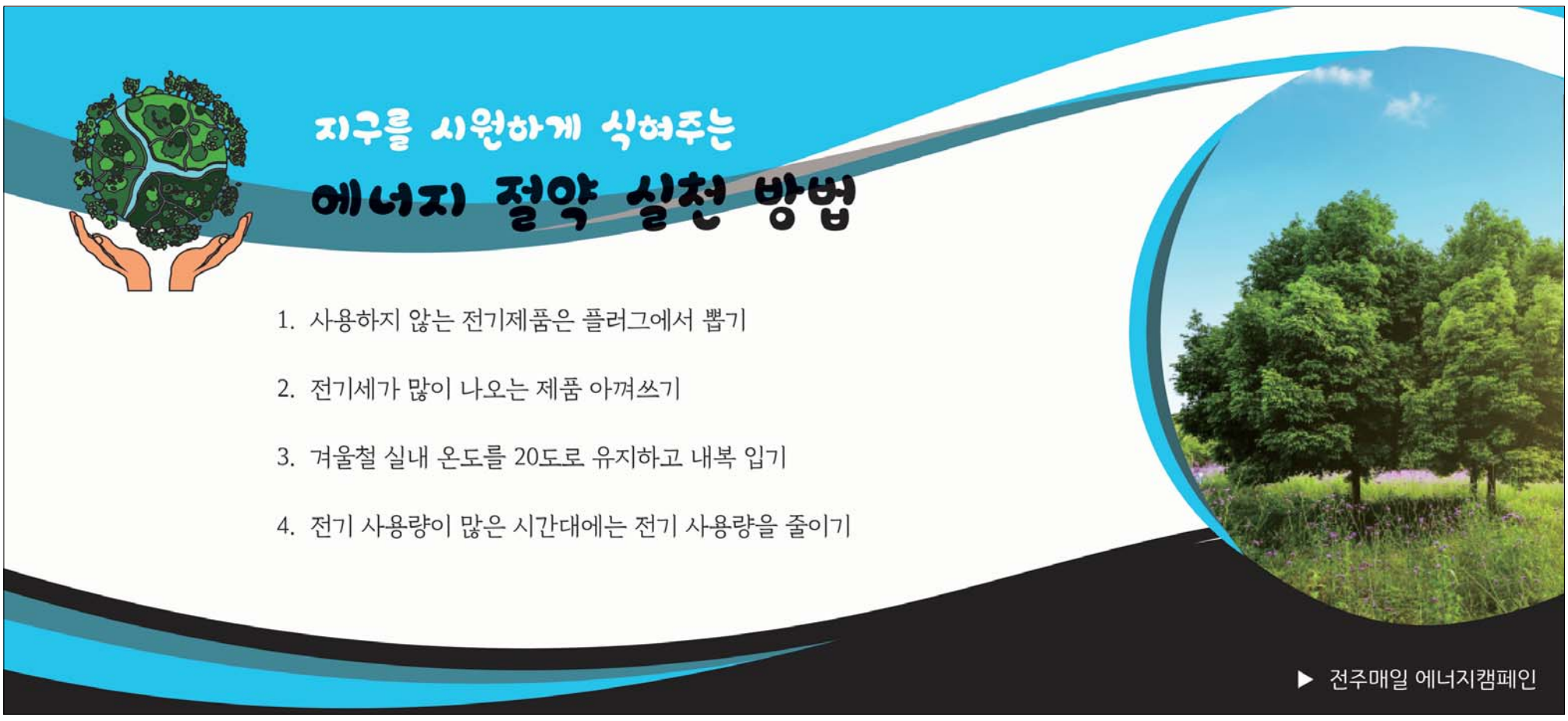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부안군,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6년 연속 선정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대상지로 부안군 백산면 대산마을이 최종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백산면 대산마을은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가 많고 공동체의 단합력과 활동력이 뛰어난 마을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모델이 될 수 있는 마을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백산면 대산마을은 앞으로 마을안길 정비, 노후담장 정비, 마을회관 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빈집 리모델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서면 왕포마을과 백산면 회포마을 사업을 완료 하였고, 2024년 사업으로 선정 된 백산면 대산마을을 포함해 현재 2019년부터 6개년 연속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총 6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